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 : 에베소서 4:1-16

요절 :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망의 2018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서신 중의 여왕’ ‘가장 영적인 저술’ ‘기독교의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 라고 일컬어질 만큼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 교리적 진술을 매우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생성 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교회론)에 대한 완벽하고도 논리적인 해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3장은 교리편(敎理編)으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과 경륜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4-6장은 실천편(實踐編)으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 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이었던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의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루신 공동체 내에 사탄의 역사로 인간적인 갈등과 다툼과 분열의 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더 나아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됨의 중요성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1-3)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1)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셋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죄수가 되기까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에베소 성도들을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10)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사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시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저가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우주적인 한 교회를 이루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원대한 뜻과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로 부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공동체(교회)가 하나 된 모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2,3)

첫째, 겸손(타페이노프로쉬네)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그의 책 『겸손』에서 겸손은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자세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타인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덕목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온유(프라우테스)입니다. 온유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온유는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는 말과 같은 야생동물을 길들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온유는 우리의 기질을 성령으로 길들인 상태입니다. 온유함이야말로 교회의 일치와 하나 됨을 유지해 나아가게 하는 위대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는 곳에 자기를 주장하는 완고함과 고집이 사라지고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갑니다.

온유의 반대는 혈기(血氣)입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모세는 처음에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 모세는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런 혈기가 있을 때 동족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족들이 서로 싸울 때 모세가 말리자 그들은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그 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을 때 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하여 광야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고자 하였고 어떤 때는 모세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인 아론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온유한 지도자 모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크리스천은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오래 참음(마크로뒤미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사랑장’(고전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오래 참고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지금 변화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싸우고 분열합니다. 우리는 좀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변화되기 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래 참

는 사랑을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연약함과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것과 같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연약함과 허물을 오래 참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합니다. 오래 참음은 연약한 영혼에 대하여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명의 땅을 떠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브라함을 잘라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겼을 때 잘라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어 주셨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허물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사명을 떠나서 어린 양들을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곁에 서서 바라보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아 주심으로 베드로가 변화되어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가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실나무가 해를 거듭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해를 거듭하여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과실나무를 도끼로 찍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 행동을 멈추세요. 봄이 우리 앞에 다가왔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그 나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혹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몇 주 지나자 그 나무에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좀 더 시일이 지난 후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고 그 열매의 무게로 인하여 나무줄기가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무엇을 말해주니까? 이는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쉽게 그 사람을 단정 짓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사랑(아가페)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한두 가지 약점이나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의 장점은 칭찬하고 약점을 감싸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역자의 훌륭한 장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 가지 약점이나 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서로간의 관계성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약점과 허물이 발견된다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외면하고 판단한다면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 됨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동역자들의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 됨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힘써 지키라는 것은 “make every effort”로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분사로 쓰여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합심 기도 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 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성령께서 역사 하시고 양들이 물려옵니다.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하나가 되고 화기에 애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있는 모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 인간적인 야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항상 성령을 중심으로 역사를 섬겨야 합니다.

II.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4-6)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4-6)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가장 소중한 덕목들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몸이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 몸 ‘예수님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도 하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어 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주도 하나이십니다. 하나 된 교회 안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따르는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다섯째, 믿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섯째, 세례도 하나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같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째,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의 하나 됨의 근거는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동일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고전12:13). 또 우리의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과 세례의 한 대상이십니다.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한 가족, 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근거입니다.

III. 은사의 다양성(7-12)

7-16절은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 된 성도의 공동체(교회)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7)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도의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공동체(교회)가 하나가 되고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사람의 개성이나 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의 통일된 몸이지만 각각의 지체에는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일체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만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는 각 지체마다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영적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그것이 크던 작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각 지체에게 적절히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다 소중한 것이며, 결코 아무것도 빠져서는 안 되는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바로 세우는데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에서는 제1바이올리니스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첼리스트도 중요하고 비올라도 중요하고 트럼펫도 중요하고 뒤에 서서 이따금씩 북을 두드려 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봐도 우리 몸에서 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도 중요하고 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허파나 간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은사가 모두 그 자신의 자리에서 전체적인 일치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가 놓이고 다른 하나가 받쳐지며 나머지 하나가 다시 받쳐지면 좋은 건물의 모양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지체들 간의 은사는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풍성함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11,12) 그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는 자로서 가장 좁게는 열두 사도를 가리킵니다(행1:21,22).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이방 땅에 살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교사처럼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는 목장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멘’(poimēn)은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선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12)

먼저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받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 됨과 풍성함을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은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높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목자나 목동의 직분도 계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직분은 양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직분으로 양들과 전체 모임을 섬겨야 합니다. 직분이 클수록 십자가도 더욱 큰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권위를 부리고자 하지 아니하고 섬기고자 할 때 그 모임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직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에도 양과 목동과 목자의 구분이 있고, 세계 선교부, 일용할 양식부, 소식부 등등 각종 부가 있습니다. 학생 목자님, 학사 목자님, 풀타임 목자님,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직분에는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나의 위치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 목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양들과 가장 가까운 캠퍼스에서 양들의 상황을 살피며 양들과 목자님들 사이의 중보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학사 목자님들은 낮에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밤에는 시니어로서 양들을 치고 모임의 영적 분위기를 이루며 중보의 기도를 감당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풀타임 목자님들은 부지런히 청소를 하며 역사 환경을 예비하고 양들과 학생 목자님들의 친구도 되고 훈련관도 되어서 양육해야 합니다. 사모님들은 가정에서 아기들과 동역자를 영육 간에 양육하며 살림을 하는 이중고를 지며 양을 먹입니다. 각각의 직분에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분에 따른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손해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나보다 더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기 광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봉사하여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공동체(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격의 성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IV.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13-16)

은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하여지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13)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가 장성함에 이를 때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14,15)

첫째,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성장하지 않는다면 육체는 성인 이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영적인 미숙아의 특징은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발전과 성장이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거나 배려함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어 가야합니다.

둘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거짓 교리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며, 어떤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고 장성한 사람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는 속임수와 간사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속임수는 사람을 속이는 술책입니다. 간사함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 신앙의 교회는 이런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따라서 요동하는 교회입니다.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생각하고 흔들리는 교회가 어린 신앙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초기에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세월이 흘러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하면 미숙아(未熟兒)입니다. 몸은 컸는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으면 지진아(遲進兒)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진실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실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실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에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과 진실과 거룩함이 있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성숙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16)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온 몸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입니다. 각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야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각 지체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할 뿐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각 지체는 지체가 맡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 성장하고 일을 하게 합니다. 각 지체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는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을 경우 각 지체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와 척추는 몸을 지탱하여 줍니다. 코는 냄새를 맡아서 미각을 도와주고 눈은 어떤 음식이 맛있게 생겼는지를 보아주고 손은 날라주고 이는 씹어 주고 혀는 맛을 느끼며 넘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식도의 도움을 얻어서 소화기관은 각자 맡은 일을 소화시키고 피는

이를 영양분으로 나누어서 각 기관에 공급해 줍니다. 이는 참으로 신비로운 합심 동역입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도 놀고먹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발에 가시라도 박혀 보십시오. 온 지체가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총동원 됩니다. 눈은 가시를 찾고 발은 가시를 빼낼 때 쓰는 족집계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손가락은 그 가시를 빼는 일을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제를 섬기려면 여러 사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장단, 말씀 섬기는 사람, 위십과 찬양을 섬기는 사람, 양들을 돕고 심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일을 하되 머리되신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아름다움 감사제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대일을 통해 캠퍼스가 하나님의 캠퍼스가 되게 하고자 하는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습니까? 캠퍼스 개척역사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목사 혼자서만, 학사목사 혼자서만 열심히 하면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하고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락하고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학생 목사님들은 양들을 실제로 만나고 상황을 알고 적극적으로 목사님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학사님들은 이를 기초로 중보기도를 감당하며 영육 간에 학생들과 사모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지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와 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지체들 사이에 긴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서로 서로 연합하여 있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아가며 힘을 얻어가며 성숙과 충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각 지체들을 인대와 같이 서로 하나로 긴밀하게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로가 도움을 입고 인커리지(encourage-격려)를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모임이나 남에게서 찾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은 나의 내면의 죄에 있습니다. 나의 교만 혈기 조급함 이기심 그리고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면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임을 크게 축복하시고 쓰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 됨의 중요성과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가는 2018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